직장인들 구청 등 싼 식당 찾아 발품…3천원 안팎 편의점 도시락 불티

뛰는 물가 우는 지갑 '新 점심풍속도'

직장인 최모(여·35)씨. 최근 점심값이 크게 올라 하루하루 메뉴 정하기가 벅차다. 점심 한끼의 가격이 올 초만 해도 4000~5000원이면 충분했으나 지난 4월부터 거의 모든 메뉴가 1000원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즐겨먹던 김치찌개와 칼국수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고, 비교적 저렴한 점심메뉴였던 자장면도 4000원을 넘어섰다. 국밥 등은 모두 6000원대로 올랐다. 여름철 자주 먹는 콩국수, 냉면류는 6000~8000원대로, 예전 한끼 점심값의 두 배를 줘야 먹을 수 있다.

연일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점심비용이 최소 5000원을 넘어서자 직장인들의 점심 풍속도마저 달라지고 있다.

개당 3000원 안팎의 편의점 도시락과 패스트푸드의 런치메뉴로 발길을 돌리는데 이어 직장 주변 구청과 대학구내식당 등 '보다 싼 곳'을 찾아 점심비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편의점 도시락은 간편하고 편리함 때문에, 구청과 대학구내식당은 싸고(3000원)도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븐일레븐의 도시락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1%나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의 생선까스 도시락과 치킨 도시락, 비빔밥 등 주요 도시락 메뉴의 가격은 개당 2500~3000원에 불과해 직장인들의 점심 인기메뉴로 급성장했다. 보광훼미리마트도 올 상반기 도시락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3%가 상승했다.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운영하는 런치메뉴도 인기다. KFC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정으로 판매하는 런치메뉴는 3300원으로 정상가 4600원에 비해 1300원이나 저렴해 직장인 단골 점심메뉴로 변했다.

남구청과 서구청 등 구청 구내식당도 올 초에 비해 점심시간 찾는 사람이 20%가량 늘었다. 3000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외부에서 식사를 하던 직원과 다른 식당에 비해 싸고 맛이 좋은 구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려는 외부 고객까지 증가한 덕분이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이 식후 즐겨 마시는 커피도 파격가를 내세운 편의점이 인기다.

편의점 아메리카노는 한 잔에 3000원대를 넘어서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비해 1/3밖에 되지 않는 1000원에 불과하다. 세븐일레븐에서만 지난달 768만4000컵을 팔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판매량이 30% 이상 증가했다.

광주시 동구의 한 편의점 업주는 "도시락은 주로 학생들이 구입하던 품목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근 직장인들이 구입하는 비율이 늘어나 하루 20개 가져나 놓던 것을 35개로 늘렸다"며 "도시락과 커피 모두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괜찮아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1일 광주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심시간을 맞아 이곳을 찾은 한 직장인이 도시락을 고르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은 가격이 2000~3000원대로 저렴해 최근 직장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매장 온도 26도 엄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하는 정부 시책이 1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광주시 서구 이마트 상무점 관계자가 매장 내 온도를 점검하고 있다. 〈이마트 상무점 제공〉

"부실 저축銀 자구책 내라"

금감원 85곳 경영진단 착수…광주·전남 6곳, BIS 높이기 박차

금융당국이 6월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 비율이 8%에 못미치는 저축은행은 자구계획을 제출해야한다고 11일 밝힌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6개 저축은행은 최근 유상증자 등을 통해 BIS 비율 8% 이상 달성 등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이날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착수와 동시에 6월 말 현재 BIS 비율이 8%에 못 미치는 것으로 자체 집계된 저축은행은 일제히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로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부실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대주주의 개인재산을 털어 자본을 확충하는 자구계획을 요구했다.

부동산과 인수합병(M&A)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사실상 대주주가 개인재산을 내 놓도록 압박한 셈이다. 당국의 지도기준인 5%를 웃도는 BIS 비율 8% 미만 저축은행까지 자구계획을 내도록 한 것은 이번 경영진단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 분류를 그만큼 엄격하게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BIS 비율을 8%로 자체 집계해도 이번에 경영진단을 하면 비율이 상당 폭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자구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영업 중인 98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지난해 말 평균 9.83였다는 점에서 절반 안팎의 저축은행이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자구계획 제출 요구는 유동성 및 건전성 확보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지역 저축은행들은 최근 건전성이 향상돼 자구계획 제출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진로 '지역 사랑기금' 1800만원 전달

㈜진로는 11일 '광주전남 사랑기금' 6차 조성금 1834만5000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지난해 1월 광주전남 사랑기금 2억원 조성 협약을 체결한 후 그동안 5차에 걸쳐 모두 8739만6720원을 전달한 데 이은 것이다.

진로는 참이슬 '정(情)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0년 1월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내 조성 목표액 2억원이 모일 때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6차에 걸쳐 기탁된 금액은 1억574만1720원으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돼 지역의 결식아동과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진로는 광주전남 사랑기금 2억원 조성, 진로 정나눔 참이슬 봉사단 운영, 광주천 가꾸기 사업 참여, 우수고객 사은행사, 소비자 초청 영화시사회 진행 등 '정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 이야기' 발간

삼성생명이 보험설계사(FC)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책 '우리들의 이야기' 출간을 기념해 11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발간식을 가졌다.

이 책은 삼성생명에서 최소 2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한 FC들의 이야기를 묶은 수기집으로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내작가 8명이 직접 취재해 만들었다. 책에는 여든의 나이에도 은퇴는 없다고 말하는 보험전도사,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보험에 대한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하는 설계사들의 애환과 보람, 모녀 및 자매 부부 등 한 회사에서 가족이 함께 활동하는 FC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박근희 사장은 축사를 통해 "컨설턴트는 보험의 본질인 사랑을 전달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직업"이라며 "사명감 하나로 수많은 난관을 이겨낸 분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백화점 세일 매출 '우울한 신장'

올 8% 증가…상승폭 전년보다 절반 감소

광주 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 지역 백화점들의 여름세일(6월 24~7월 10일) 기간 매출이 소폭 신장했지만 전년보다 신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7일간 진행된 여름 정기 세일 기간 매출이 지난해 여름세일 기간보다 8%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5% 신장됐고, 지난 2009년도 전년보다 20%대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상품군별로는 화장품 18%, 아동·유아 18%, 해외명품 13%, 남성의류 12%, 패션잡화 12% 순이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난해에 비해 전체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품목별로는 디자이너·수입의류 56.7%, 아웃도어 21%, 패션잡화 13%, 남성정장·셔츠 5%, 가전 2%, 골프·레저 2%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축산·수산(-10%), 농산(-12%)은 실적이 저조했다.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세일 기간 동안 이른 장마가 겹쳐 고객 방문율이 감소한 것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무디스, 전북은행 신용등급 하향 검토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전북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급속한 자산 증가로 자본적정성과 순이자마진(NIM)이 악화된 것과 우리캐피탈 인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무디스는 설명했다.

무디스는 향후 3개월 이내에 등급 하향 검토 작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등급 하향 조정폭은 1~2단계로 예상했다. /연합뉴스